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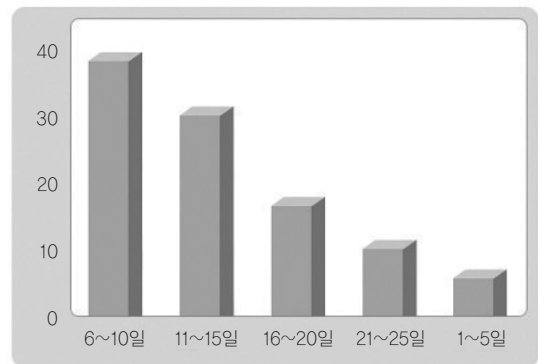
# 월간「설비건설」 발전방안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월간 「설비건설」지령 200호를 맞아 월간 「설비건설」의 구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대의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월간 「설비건설」구독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월간 「설비건설」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설비업계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편집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한 것이다.

## ■ 월간「설비건설」 수령시기

월간「설비건설」을 수령하는 시기에 관한 물음에 매월 6일~10일이라는 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1일~15일 30% △16일~20일 15% △21일~25일 10% △1일~5일 7.5%로 응답했다. 이번 답변으로 매월 말에 발간하여 월초에 배송되는 월간「설비건설」은 월초에 회원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일 이후에 받아보는 것으로 나타난 회원사들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회원사들이어서 월간지 발행을 좀 더 앞당겨 모든 회원사가 월초에 받아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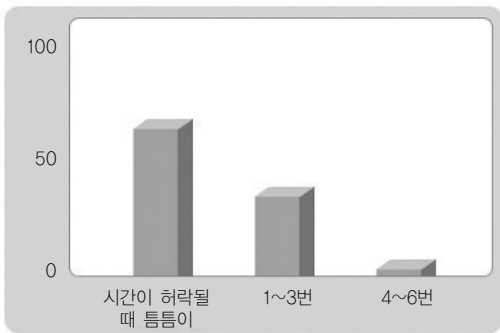


월간 「설비건설」 수령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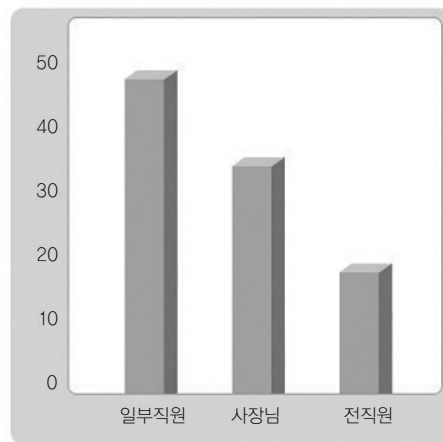
■ 월간「설비건설」구독 빈도 · 대상자

월간「설비건설」의 구독 빈도수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허락될 때 틈틈이 보는 회원사가 62.5% △1~3번 보는 회원사가 32.5% △4~6번 보는 회원사가 5%로 응답해 회원사에서 ‘시간이 허락될 때 틈틈이’ 읽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독대상자는 △일부 직원이 46.5% △사장이 34.8% △전 직원 18.6%로 ‘사장을 포함한 일부직원’이 월간「설비건설」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은 물론 시공관련 지식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설비건설」 구독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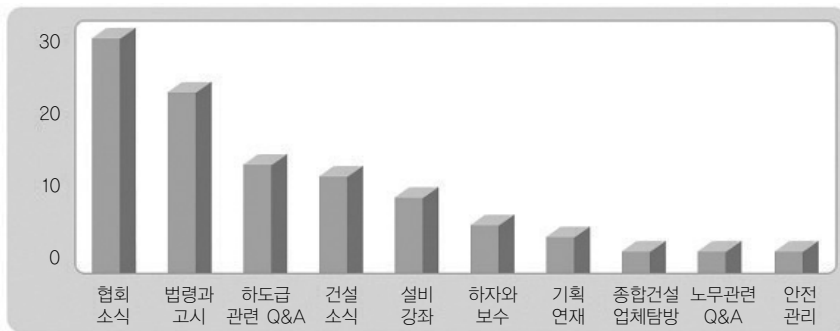


월간 「설비건설」 구독 대상자

■ 월간「설비건설」기사 선호도

월간「설비건설」에서 가장 먼저 읽는 기사에 대한 질문에 △협회소식 25% △법령과 고시 21.8% △하도급 관련 Q&A 12.5% △건설소식 10.9% △설비강좌 9.3% △하자와 보수 6.2% △기획연재 4.6% △종합건설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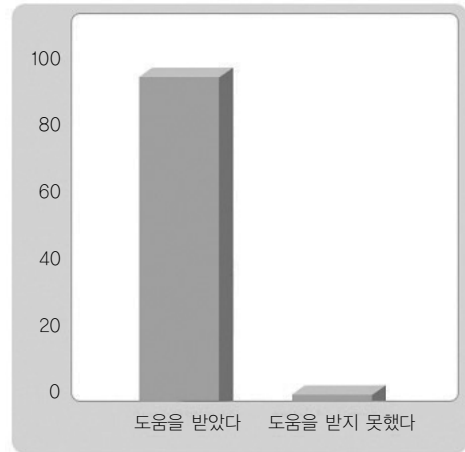
탐방 3.1% △노무관련 Q&A 3.1% △안전관리 3.1%로 나타나 회원사들이 협회 동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건설소식에도 관심 많은 것으로 보여져 월간「설비건설」이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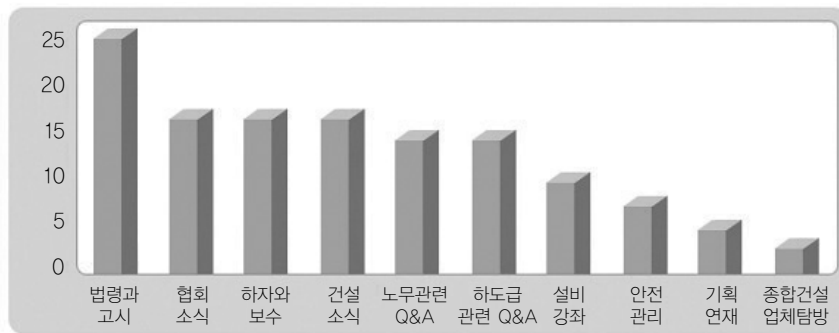
월간 「설비건설」 기사 선호도

■ 월간「설비건설」의 전문성 평가와 도움 받은 기사

월간「설비건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회원사는 97.5%,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회원사는 2.5%로 나타나 월간「설비건설」이 설비건설업계 유일한 전문지로서 제몫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된 기사에 대한 질문에 △법령과 고시 20% △협회소식 12.3% △하자와 보수 12.3% △건설소식 12.3% △노무관련 Q&A 10.7% △하도급관련 Q&A 10.7% △설비강좌 7.6% △안전관리 6.1% △기획연재 4.6% △종합건설업체탐방 3% 등을 꼽아 협회동정과 더불어 법령·고시, 하자사례 등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설비건설」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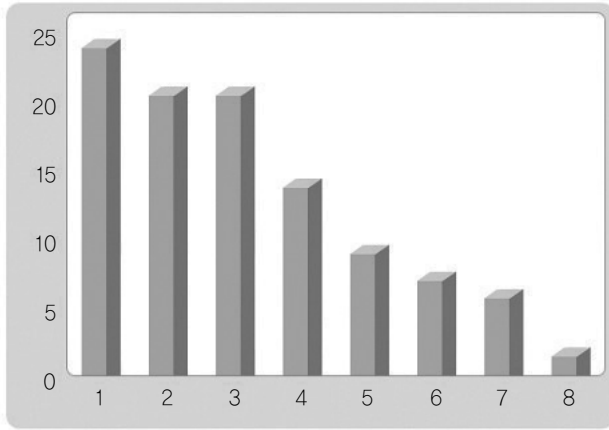


월간 「설비건설」에서 도움이 된 기사

■ 향후 월간「설비건설」이 다뤄야 할 내용

앞으로 월간「설비건설」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에 △유형별 하자사례 및 문제점, 구체적인 대안 제시 23.6% △노무관련 등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 방안 20.4% △특수건물의 시공사례 및 신공법, 신제품 개발사례 소개 20.4% △국책건설사업 및 공공주택사

업 소개 12.4%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재해사례와 대책 및 분석 9.6% △설비건설인들의 동호회 활동 소개 6.4% △건강관련 내용 5.3% △IT 등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 1% 로 답변해 급변하는 정부시책에 대한 관심과 하자사례 등 시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간「설비건설」향후 다뤄야 할 내용

- 주) 1. 유형별 하자사례 및 문제점, 구체적인 대안 제시
2. 노무관련 등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방안
3. 특수건물의 시공사례 및 신공법, 신제품 개발사례 소개
4. 국책사업 및 공공주택공사업 소개
5.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재해사례와 대책 및 분석
6. 설비건설인들의 동호회 활동 소개
7. 건강관련 내용
8. IT 등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

### ■ 월간「설비건설」에 당부하는 말

‘월간「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하여는 △각 시·도별 소식과 신기술·신제품 등의 활용사례 소식 △설비건설업체탐방(소개) 기획 △설비건설업체의 눈과 귀가 되어 줄 것 △설비건설업역의 분리발주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법령연구 제안활동 요구 △업계 상생을 위해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 등의 개최 및 주선 역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원사의 이 같은 바램은 월간「설비건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회원사의 염원이 담겨있음을 반증했다.

### ■ 월간「설비건설」제2의 도약 발판 마련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간「설비건설」이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을 사회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의 위상 제고에 가일층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각종 자료와 다양한 최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업계의 당면과제와 설비건설인의 욕구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해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